

# 도내 중기 해외판로 개척나서

### 경진원 '해외바이어 및 에이전트 초청상담회' ... 현장 계약액 500만불 성과

도내 수출희망 중소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의 장이 21개사 바이어, 도내업체 8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22일 경진원에서 '해외바이어 및 에이전트 초청상담회'를 가졌다. 베트남, 인도, 프랑스, 호주 등 8개국 15개 바이어와 국내 3개 에이전트가 참여했다.

한류영향에 따라 가공식품, 이마용, 생활용품, 산업기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 상담건수 267건, 현장계약액 500만불, 상담액 1,012만불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도내 업체 피코바이어가 새롭게 떠오르는 미얀마 시장의 CCHA사와 500만달러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주)피코바이오는 전북 정수군에 위치한 업체로 2005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우수 중소기업이다. 이미 터키, 미국, 이란 등 15여개국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겸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다른나라의 동향 파악, 바이어발굴 등 수출 다변화도 꾀하는 계기가 됐다.

도내업체들은 해외진출에 앞서 직접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해 제품에 대한 검증과 수출 희망국에 대한 수출 절차, 시장 경향을 편히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고 전했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전북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시장이 수출의 새 길을 열 수 있는 전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또 이번 수주 뿐만 아니라 추가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업무제휴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지진’ 때문에 흑시나** 지난 12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경주 지역에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경주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 유통업계, 불황 타개위한 옴니채널 구축 강화 '주목'

(모든 유통경로)

### 온라인쇼핑몰, 편의점과 함께 무인택배 서비스 잇달아 선행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업체들이 옴니채널 구축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매장에 물건을 진열해놓고 소비자들이 찾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모든'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경로를 의미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다. 온·오프라인·모바일 등으로 구분 돼 있는 모든 쇼핑채널을 고객들이 하나의 매장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복합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다는 점에 착안 편의점과 함께 무인택배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택배를 받기 어려워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은 CJ와 GS25, 세븐일레븐 등 빅형 편의점 점포수가 2만 5000여개가 넘는다는 데 착안해 기획됐다. 집 근처에서 상품을 쉽게 수령하는 데 있어 편의점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마트,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GS25와 손을 잡고 스마일박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마일박스 서비스는 이마트, 옥션, CJ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스마일박스가 설치된 GS25를 배송지로 지정하면, 지정된 스마일박스로 택배가 배송된다.

택배가 도착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소비자가 점포를 방문해 스마일박스 무인 키오스크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함이 열리고,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롯데닷컴과 엘롯데는 같은 계열사인 세븐일레븐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전국 4200여개 점포에서 '스마트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닷컴과 엘롯데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스마트픽' 찾기를 선택한 후 지정 산책로에서 '세븐일레븐'을 클릭하면 된다.

/뉴시스

## 'Korea Sale FESTA' 축제기념 행사

29일~내달 2일까지 전주남부시장서 국악양상블, 아시장 타임세일 등 진행

전주남부시장에서 전 국민 모두가 즐기는 'Korea Sale FESTA' 축제 기념 행사가 마련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주 남부시장은 17개 광역 지자체별 대표 전통시장으로 선정돼 관광과 문화가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 지역별로 고유한 매력이 있는 전통시장의 참여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다.

이달 29일부터 10월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익산 북부남부시장, 군산 명산나문주공시장 등이 확산시장으로 참여하게 된다. 행사는 체험이벤트와 국악양상블, 아시장 타임세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정원택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Korea Sale FESTA' 기간에 우리도

에서 참여하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 개념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지역 전통시장 고객 유입과 활력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행사 기간에 전주남부시장 등에 꼭 방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반려동물 용품도 홈쇼핑에서 만난다

### 신세계티비쇼핑, 앱 통한 '스마트 펫케어 시스템' 론칭

최첨단 반려동물 용품도 홈쇼핑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22일 신세계티비쇼핑은 23일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 자동급식 뿐만 아니라 고화질 영상통화와 양방향 음성전달이 가능한 스마트 펫케어 시스템 '펫스테이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세계티비쇼핑은 반려동물 관련 용품 시장의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가정용 드라이제품 '볼 펫'을 론칭 판매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론칭기념 특별판매기간 동안에

는 본품인 자동급식기 배변패드가 포함된 구성품 3종(물수급기, 배변판, 배변패드팩)을 추가 제공한다.

이상수 신세계티비쇼핑 리빙뷰티팀 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1인 가정의 증가로 평일 낮시간대 장기 출장 여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모바일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한 제품들의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적극 발굴해 판매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맥도날드, 5가지 아침 메뉴 1000원

### '맥모닝 워크' 진행

맥도날드(대표이사 조주연)는 오는 26~30일 5일간 행복의 나라 아침 메뉴 5종을 각 1000원에 제공하는 '맥모닝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고 22일 밝혔다.

이번 맥모닝 워크 행사는 바쁜 아침 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거나 쉬운 고객들이 단 1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에 따뜻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오전 4시부터 10시30분까지 전국 맥도날드 맥모닝 판매 매장에서 소시지 맥퍼민 핫케익 2조각, 토마토 에그랩, 소시지 에그랩, 에그 포테이토폴 등 5가지 행복의 나라 아침 메뉴를 각각 최대 50% 할인된 가격인 1000원에 즐길 수 있다.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거나 차를

타고 맥드라이브를 이용해 간편히 픽업을 해갈 수도 있다.

맥도날드 맥모닝은 높은 영양, 탁월한 맛, 합리적인 가격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등교길의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아침 메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맥도날드 마케팅 관계자는 "지난 여름 진행했던 맥모닝 워크에 보내주시던 고객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시 한 번 기회를 마련했다"며 "단 5일간 열리는 행사인 만큼 가까운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1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에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2006년 업계 최초로 아침 메뉴인 맥모닝을 출시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높은 아침 식사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우유, 우유값 최대 100원 인하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이후 가격을 내린 원유 가격이 또 다시 인하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현)이 오는 10월1일부터 '100%우유' 5개 대표 품목의 납품가를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100%우유' 이번 납품가 인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100%우유(1.1, 1.8, 1.2, 3.1)', '100% 저지방우유' 1.1, '100% 홈밀크 1.1' 등 서울우유를 대표하는 5개 품목이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이 40원에서 최대 100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는 원유가격 인하 효과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 혜택으로 반영하기 위해 원유품질향상, 포장재, 원자재, 공공요금 등 제비용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가 인하를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해 원유가격이 리터당 18원 인하되었음에도 업계 1위로서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격적 혜택을 반영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원유가격 인하 효과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품가 인하를 결정했다"며 "지난 수년간 적체되어온 인상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일유업은 저지방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저지방 3종' 가격을 자사 일반우유와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납품가를 인하했으며, 남양유업도 가격 인하를 고려 중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은 저지방우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저지방우유 섭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선보이기로 결정했다"며 "다양한 저지방우유 캠페인 활동을 선보이며 우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우유 1.1을 2200원에 판매하는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농어촌공 전북본부 소방안전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학원)는 22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소방서 서부119센터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안전교육은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 전기제품 사용시 화재발생 대처요령이 다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완산소방서와 함께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실제실습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